

독거노인의 가족해체 유형에 관한 연구*

신근화**

◀ 요약 ▶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가족해체요인을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유형화하고자 한다. 8차례의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29개의 진술문을 29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Q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 1은 정체성상실과 무력감으로 인한 자립형, 유형 2는 개인주의와 결속력 약화로 인한 해체형, 유형 3은 가족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해체형, 유형 4는 건강상태에 의한 자립해체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를 보면, 첫째, 혼자 살기를 원하는 자립형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독거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로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여 밀착형 관계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독거노인복합공동체 개념도입과 이에 따른 독거노인 전용센터와 같은 전문적 보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넷째, 가족해체로 인한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가족해체, 독거노인, 유형, Q방법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geun-hwa@hanmail.net)

1. 서론

가족해체는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해고 및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가족경제의 빈곤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이혼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은 실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단순한 소득상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여 가정불화, 자녀양육 포기, 가족구성원의 가출, 이혼 그리고 자살과 같은 가족해체를 가져온다.

가족해체는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에 대한 기능주의적 개념으로 부모의 이혼과 별거, 가족구성원의 가출, 자녀의 양육포기, 자살, 가족불화 및 폭력, 신체적 건강의 악화 등 구조적,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다. 가족해체는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비롯하여, 자녀유기, 노인부양, 청소년 비행 및 범죄, 가족·학교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안정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해체가 최근에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해체가족구성원들이 양육·간병·경제적 부양 등을 수행해온 가족기능을 지원받지 못해 가족해체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 가족해체에서 완전한 가족해체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조광영, 2003: 42). 그리고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이혼 및 가족해체 증가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가족해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빈곤이 가족해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빈곤이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다른 측면이 가족해체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이다. 결국 독거노인문제는 가족해체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서 근본적인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해체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들은 해체가족의 실태분석(김승권 외, 2001; 변화순 외, 2000),

실직자 및 빈곤과 가족해체관련성(노혜련, 2000; 김연옥, 2001; 박성원, 2005; 조광영, 2003; 황청일·조광영, 2005; 김두연, 2006; 윤홍식, 2003; 2004), 경제위기와 실업이 가족관계 및 가족해체에 미치는 영향(조성희, 1999; 안병철, 2000; 최일섭·조성희, 2000), 그 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정책(도미향·윤지영·이명숙, 2010),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가족해체(부승희, 2005),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가족상담방안(김명중, 2007), 가족해체가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박재규·이정림, 2010)이 있다.

한편 가족해체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독거노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독거노인에 관한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및 가족지지, 우울, 건강상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로서 단편적인 독거노인의 특성 자체만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해체를 대상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끌어낸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다. 가족해체에 관한 실태분석이나 영향요인 분석에 의존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거나 변수간의 인과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힘들다. 또한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과 실업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유용성과 타당성을 양적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가치와 태도, 의견과 주관성을 수량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해체를 빈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과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해체요인을 밝혀 유형화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해체의 개념

가족해체(family disorganization)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적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 가족해체는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에 대한 기능주의적 개념으로 부모의 이혼과 별거, 가족구성원의 가출, 자녀의 양육포기, 자살, 가족불화 및 폭력, 신체적 건강의 악화 등 구조적,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리고 가족해체 과정은 목적의 불통일, 태도의 부적응, 인적 배치의 비조정 등에 의해서 가족기능에 점차로 장애를 발생시켜 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해체에는 해체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적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체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혼이며, 이 경우 형식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가족분열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별거, 가족원의 가출, 자녀의 양육포기, 가족원의 자살, 가족불화, 가정폭력, 신체적 건강의 악화, 심리적 건강의 악화 등 구조기능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최재석, 1998).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가족해체란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장기간 부재에 의하여 결손가족이 되어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해체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즉, 외형적 가족구조에 의하여 판단되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외부에서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에서의 가족해체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가족해체는 가족 구조상의 흠결여부를 떠나 기능상 결손에 의하여 정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가족해체가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붕괴, 결속의 파괴 등”으로 간주되는 광의적 가족해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조광영, 2003: 48). 기능주의 이론의 하위이론인 사회해체론의 입장에서 가족해체란 “배우자의 사망, 부부의 이혼, 별거, 가출, 유기 등과 관련되어 부부가 없는 상황과 부부 및 자녀, 친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주부양자의 무능력, 가족갈등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가족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그와 유사과정에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상태의 가족이든 최저수준의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해체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조광영, 2003: 50). 그리고 최성익(2006)에 의하면 가족해체는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최성익, 2006), 일반적으로 가족해체의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첫째, 사망이나 이혼, 일방적인 유기, 별거 등으로 분리된 가족, 둘째, 불법적인 결혼으로 미완성 가족, 셋째, 동거중이지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과 접촉의 결여로 인한 공허한 가족, 넷째, 정신적·감정적·신체적 병리현상 때문에 생기는 역할 상실

로 인한 내부적 재난 가족으로 가족해체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가치관의 일탈현상 모두를 말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해체를 폭넓은 개념으로 가족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붕괴된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2) 가족해체 요인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해체 요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물질적 지지의 필요성들을 제시하고 있고 실직과 가족해체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인식하여 가족해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연옥(2001)에 의하면 실직과 가족해체의 현상을 깊이 관찰하면 실직이라는 외부적 충격은 가정의 내부적 기제를 통과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와 가정의 내부적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가족해체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 외에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노혜련(2000)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는 반드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계가 견고할 때는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가 오히려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실직은 이혼·별거의 촉진제가 되었을 뿐 근본적인 이혼원인은 정서적 유대의 파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직 및 소득경감 등 경제위기로 이혼·별거의 위기에 처한 가족은 실직 전에 이미 정서적 유대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사례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양해경, 1998). 그리고 도미향·윤지영·이명숙(2010)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은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자 가족원 또는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고, 부부간의 갈등 다툼과 적대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 간의 응집력을 떨어뜨린다(Larson, 1984). 결국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족관계에서 긴장을 증대시키고, 가족해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노혜련, 2000; 김연옥, 2001; 구인회, 2002). 박성원(2005)은 실업이 가져오는 영향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이외에도 심리·신체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주요

한 원인이 된다. 즉, 실직이후 실직자와 가족성원 대다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심리·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족은 스스로의 해결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의 존립에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최균, 1994). 실업은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 노부모에게 영향을 주어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실직자가 가족성원의 하나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관계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하여 부부관계의 질이 낮아지고 부부사이의 긴장이 증가하여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결국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출, 별거,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3) 가족해체와 독거노인

가족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가족해체(family disorganization)는 최근 부모를 부양하려는 자녀가 급감하고 자식과 동거하지 않겠다는 성인이 늘어나는 등 가족의 연대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1988년 89.9%에서 2010년엔 36.0%로 떨어졌고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도 2002년 53.0%에서 지난해 29%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족해체는 IMF경제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심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주며, 개인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가족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부모의 부양부담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의사소통 감소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부모와 자녀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가족해체가 노부모,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신체적 문제로까지 야기되어 자살, 질병 심지어 주거문제까지 가져오게 된다. 가족관계의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된다.

독거노인의 가족해체에 이르는 유형은 일반적으로 개인가족적인 측면에서 배우자의 사망, 즉 사별에 의한 경우와 이외에 자녀의 이혼 및 별거를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을 들 수 있다. 김승권(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의 해체원인은 사망 60%로 1인 단독가구의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망의 원인은 병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으며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 여성배우자가 홀로 남겨지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가져온다. 그리고 자녀의 부부불화, 경제적 문제에 따른 이혼 및 별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구성원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오제는(2006)에 의하면 이혼 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의 곤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신체적 증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실업과 빈곤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가 속해 있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가정불화, 자녀양육의 포기, 가족구성원의 가출, 이혼 그리고 자살 등 가족해체로 이어지기 쉽고(노혜련, 2000) 그로 인한 빈곤은 가족구성원간의 긴장과 갈등이 조장되고 구성원 각자의 역할이 변화되며, 더 나아가 통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족해체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족기능의 상실로 볼 수 있는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녀의 생계 곤란 때문에 주로 발생하여(황청일·조광영, 2005) 독거노인의 가족해체에 이른다 고 볼 수 있다.

3. 조사방법

1) 조사절차

Q 방법론의 절차는 먼저 연구자가 의도하는 변인을 정의한 다음 그 변인을 대표하는 진술문을 수집 또는 작성하고, 준비된 진술문에 반응할 사람을 선정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Q 분류의 자료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된 진술문을 정상분포 또는 준 정상분포가 되도록 강제분류하게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분류한 사람

들 간에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이 상관계수 행렬을 요인분석하여 요인을 추출,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주관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헌수·원유미, 2000).

2) 진술문의 수집 및 선정

Q 진술문의 작성에는 구술형과 추출형¹⁾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Q진술문을 작성하는 방식인 추출형의 방식을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구술형에 기초한 자료에 연구자가 진술문을 추가하여 수집하였다.

우선 추출형의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Q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가족해체에 대한 다양한 진술문의 작성을 위해 가족해체와 관련된 연구논문(조성희, 1999; 조광영, 2003; 노혜련, 2000; 김연옥, 2001; 김두연, 2006; 박성원, 2005; 최일섭·조성희, 2000), 독거노인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연구논문(김수현·강현정·김윤정, 2008; 장희선·김윤정, 2008; 서연희, 2011), 기타 노인과 가족관련 논문 및 척도(장수미, 2008; 문수경·정재은·손의성, 2008; 오선영, 2008; 정동하, 2009; 박영준·송인옥, 2008; 정순돌·유정예, 2009; 김미령, 2008) 등 30여 편과 각종 보고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을 토대로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료수집과 함께 구술형의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은 문헌연구와 달리 사회현상을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Q 진술문의 수집을 위한 심층면접자 선정은 본 연구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전문가를 포함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창의적이고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흥규, 2008).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위해 사회복지교수 및 현장전문가 6명, 독거노인 1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면접대상자인 독거노인의 경우 어느 정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편의표

¹⁾ 구술형은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주제에 관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의 결과로 진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추출형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Q진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집하여 연구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와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면접은 일반적으로 대면을 통한 방법과 서면진술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면진술방법과 대면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관련전문가는 서면에 의한 심층면접으로 서면질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 형식의 진술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10명은 대면을 통한 심층면접으로 심층면접과 문헌연구를 통해 얻어진 진술문을 가지고 예비 진술문을 만들었다.

한편 Q 표본을 선정하는 데에는 구조적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²⁾이 있다(김순은, 1999).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에 따라 Q 표본을 선정하고, Q 진술문을 작성하였는데, Q진술문의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Q진술문을 범주화의 기준으로 공통적 의미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진술문끼리 범주화하였다. 다음 단계로 범주화된 진술문을 토대로 상이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8차례의 재범주화과정을 통해 진술문을 선정하고 이를 노인복지전공 교수님 3인과 조사대상자인 독거노인에게 의뢰하여 진술문 표현상의 난해함 등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수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가족해체 및 Q 방법론에 관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교수 2인의 자문을 통하여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최종 선정하여 선정된 진술문을 조사대상자인 독거노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응답하기에 어렵거나 진술문의 표현이 난해한 것들을 찾아 최종수정하였다.

3)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포괄적인 연구의 경우 20-30명 내외로 선정하며, 심층적이고 극단적인 연구에는 1명을 표본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McKoeun & Thomas, 1988; Kerlinger, 1986; Brown, 1980).

²⁾ 구조화된 Q-sample방법은 연구자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기준이나 이론에 따라 배제되는 의견이 없도록 Q문항을 적절히 안배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비구조화된 Q-sample방법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연구대상자 및 기존이론과 연구들로부터 Q 진술문의 모집단(Q-population)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진술문들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다(김희성, 2011).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경남지역 가운데 인구분포가 가장 큰 C지역을 선정하였고 특히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관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 지역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독거노인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참고하여 여성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총 30명 가운데 여성독거노인은 27명, 남성독거노인은 3명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4) Q 표본 분류

Q 분류는 Q 진술문을 조사대상자에게 주고 자기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Q 진술문(카드)을 동의하는 순서대로 배열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는 먼저 무순으로 혼합된 Q 카드를 전부 잘 읽은 후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동의, 중립, 가장 낮은 동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진술문을 각 점수별로 진술문 수에 맞게 분류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4, +3, +2, +1 순으로 배치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가장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진술문으로부터 -4, -3, -2, -1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진술문에 중립·모름·관련 없음의 경우에는 0으로 분류하게 하고, 점수별로 분류되는 카드의 수는 0을 기준으로 유사정상분포로 할당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였다. 이는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원식·정연주, 2010).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잘못응답 처리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29부를 Q방법론 연구를 위해 고안된 통계프로그램인 PQ method(ver. 2.11)로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1) 가족해체 요인에 관한 Q 유형의 결과

독거노인의 가족해체 요인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요인은 동일한 견해를 갖는 응답자 집단을 말한다(김순은, 1999). 가족해체 요인의 요인행렬표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요인행렬표는 유형을 구성하는 P 표본의 수와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정 P표본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김순은, 2007).

[표 1] 연구대상자(P-sample)의 요인행렬 및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Component				성별 연령	거주 형태	독거 기간	자녀 수	결혼 상태
	1	2	3	4					
S01	0.4039	-0.3347	0.3973	0.5018	여 84	자가	2.6	2녀	사별
S02	0.6134	-0.0251	-0.1805	-0.5898	여 81	자가	60	1남	사별
S03	0.2685	-0.3617	-0.0965	0.4714*	남 79	자가	10	1남 3녀	사별
S04	0.5085	-0.0777	-0.3573	0.6295*	남 88	자가	18	3남 2녀	사별
S05	0.1648	0.3478	-0.7329*	0.1162	여 80	자가	40.2	4남	사별
S06	-0.1667	0.7163*	-0.0572	0.0763	여 81	전월세	25	1남	사별
S07	-0.4315	0.6734*	-0.2710	0.0368	여 78	전월세	10	3남 1녀	사별
S08	0.1283	0.0658	0.5962*	0.0088	여 78	월세	20	2녀	사별
S09	0.1515	0.1539	0.0386	0.7815*	여 84	자가	23	1남 1녀	사별
S10	0.4780	0.4013	0.4206	0.0992	여 77	전세	7	4녀	사별
S11	0.6743*	0.1363	0.2017	0.3401	여 78	친척집	23.6	2남 2녀	사별
S12	0.5147	-0.1871	-0.6014*	0.1192	여 81	전월세	50.6	1녀	사별
S13	0.1571	-0.0777	0.5693*	0.3677	여 90	자가	15.2	2남 1녀	사별
S14	0.6525*	-0.0398	0.2138	0.4815	여 85	월세	10.1	3남 3녀	사별
S15	0.1732	0.7858*	-0.2215	-0.0452	여 73	전월 세	6.4	1녀	사별
S16	0.5469*	-0.4662	0.0251	0.2063	여 76	자가	1.2	4명	사별

응답자	Component				성별 연령	거주 형태	독거 기간	자녀 수	결혼 상태
	1	2	3	4					
S17	0.3546	0.6674*	0.0358	0.4265	여 79	자가	30	1남 1녀	사별
S18	0.1032	0.7940*	-0.1530	-0.1712	여 76	월세	30	1녀	사별
S19	0.8246*	-0.1023	-0.2950	0.1356	여 77	자가 (불법)	23	1남 3녀	사별
S20	-0.2118	0.8194*	0.2535	0.0558	여 76	월세	20	2녀	사별
S21	-0.3462	0.6366*	0.1057	-0.0845	여 75	전세	10	2남 2녀	사별
S22	-0.3882	0.5681*	0.1063	-0.1744	여 75	전세	6.2	2남 1녀	사별
S23	-0.0570	0.5271*	0.0203	0.0845	여 79	기타	13.5	3남 1녀	사별
S24	0.2332	0.7075*	0.2611	-0.0200	여 83	-	10.2	3남 1녀	사별
S25	-0.1761	0.7875*	-0.1660	-0.1496	남 79	자가	10	2녀	사별
S26	0.7390*	-0.0330	-0.0898	-0.0145	여 81	자가	22	3남 1녀	사별
S27	0.7110*	-0.3730	0.0007	0.1954	여 82	자가	50	2남 2녀	별거
S28	0.8501*	0.0984	0.3578	0.1623	여 84	기타	24	2남 1녀	사별
S29	0.8098*	-0.1935	0.1107	0.0966	여 77	자가	2.10	3남 1녀	사별
Eigen값	8.3608	5.4920	2.8230	1.8623					
설명량 (%)	23	22	9	10					
누적설 명량 (%)	23	45	54	64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유형 1은 8명, 유형 2는 11명, 유형 3은 4명, 유형 4는 3명으로 구성된 응답자 군의 관점이다. 응답자 중 1, 2, 10은 어느 유형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Brown, 1995). 각 유형의 요인고유값을 보면, 유형 1의 Eigen 값은 8.3068, 유형 2의 Eigen 값은 5.4920, 유형 3의 Eigen 값은 2.8230, 유형 4의 Eigen 값은 1.8623으로 설명량은 각각 23%, 22%, 9%, 10%이고 네 개 요인 모두가 설명하고 있는 정도는 64%이며 이 값은 네 유형이 가족해체 전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설명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누적설명량이 40% 이상이면 의미있는 수치이며 50%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진술문 각각 요인가는 [표 2]와 같다. 진술문들의 요인가는 Q 요인의 해석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McKeown & Thomas, 1988). 진술문들이 각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각 유형이 보여주는 진술문에 기초하여야 한다(김순은, 2007).

[표 2] 진술문의 요인가(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진술문		요인배열			
		F1	F2	F3	F4
0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0	-1	2	2
02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0	-1	1
03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	-1	-3	0	-2
04	명절이나 제사가 있으면 가족모두가 참석한다.	2	-2	2	2
05	집안일을 가족과 함께 의논한다.	2	-1	3	1
06	우리 가족은 단합이 잘 된다.	1	-2	2	1
07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다.	2	-1	0	0
08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	1	-1	0	1
09	우리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한다.	0	-1	1	0
10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1	0	0	2
11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3	1	-1	-1
12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0	-2	-1	0
13	가족들에게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	0	0	-2
14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	-1	1	0	-1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준다.	0	0	1	1
16	가족간의 서로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	1	1	1	-1
17	평소 가족간에 대화가 별로 없다.	-1	1	-1	0
18	가족간에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	-1	-3	-1	-1
19	가족간에 서로 관심이 많다.	1	-1	-1	0
20	가족간에 싸움이 잦은 편이다.	-2	0	-2	-2
21	가족간에 서로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0	0	-2	-1
22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	0	1	0	0
23	가족간에 화를 잘 내지 않는다.	1	0	1	-1
24	가족은 나를 부양하거나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2	3	1	1
25	가족은 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0	3	3	-3
26	부양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있다.	-3	1	-2	3
27	가족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불편해 한다.	-2	2	1	-3
28	나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3	2	-3	3
29	나이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당연하다.	3	2	-3	0

Variance = 2.483 St. Dev. = 1.576

[표 3]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1	1.0000			
유형 2	-0.1974	1.0000		
유형 3	-0.0656	-0.1261	1.0000	
유형 4	0.4883	-0.0533	-0.1921	1.0000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유형 1과 유형 2의 상관계수는 .1974이며, 유형 1과 유형 3은 .0656, 유형 1과 유형 4는 .4883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 2와 유형 3은 .1261, 유형 2와 유형 4는 .0533, 유형 3과 유형 4는 .1921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3]. 유형 간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는 각 유형이 독립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해체 요인에 관한 유형별 특성 분석

(1) 유형 1의 특성: 정체성 상실과 무력감으로 인한 자립형

[표 4] 유형 1의 진술문

구 분	Q statement	Z score
긍정	28. 나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2.250
	29. 나이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당연하다.	1.339
	4. 명절이나 제사가 있으면 가족모두가 참석한다.	1.293
	5. 집안일을 가족과 함께 의논한다.	1.060
	24. 가족은 나를 부양하거나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1.150
부정	20. 가족간에 싸움이 잦은 편이다.	-1.428
	27. 가족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불편해 한다.	-1.561
	26. 부양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있다.	-1.635
	11.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2.217

가족해체 요인에 대한 유형 1의 설명력은 23%로 P sample 중 8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1은 가족결속력과 지지, 가족친밀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로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들은 부모부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족갈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동거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특히 부양의식의 경우 오히려 가족들의 부양의식은 높으나 독거노인 자신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부양을 원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하며 혼자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유형 1을 ‘정체성 상실과 무력감으로 인한 자립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유형 1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유형 1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응답자의 개방형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19: 나는 여기서 자리 잡아서 애들을 여태껏 키워왔는데 참 좋았어. 여긴 이웃도 좋고 많이 정든 곳이야. 애들은 나를 금덩어리인양 애지중지하게 생각해. 지금 떨어져 살지만 너무 잘 챙겨줘서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또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

S27: 남편이 오랫동안 외도해서인지 가족 간의 단합이나 협동은 아주 좋아. 그래서 애들은 내가 저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걸 알아서인지 항상 나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존경하고 있어.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인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또 애들한테는 부양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

S28: 우리 집은 남편과 사별기간이 아주 오래되어서 내가 늘 가족화합을 강조했더니 애들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 꼭 굳이 자녀들하고 살 필요가 있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애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2) 유형 2의 특성: 개인주의와 결속력약화로 인한 해체형

[표 5] 유형 2의 진술문

구 분	Q statement	Z score
긍정	24. 가족은 나를 부양하거나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2.172
	25. 가족은 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1.758
	28. 나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1.535
	27. 가족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불편해 한다.	1.274
	29. 나이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당연하다.	1.246
부정	6. 우리 가족은 단합이 잘 된다.	-1.287
	18. 가족간에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	-1.378
	3.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	-1.411

가족해체 요인에 대한 유형 2의 설명력은 22%로 P sample 중 11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2는 유형 1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결속력이 매우 약하고, 가족의 지지와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으며,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서로간의 관심이 없으며,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만남을 거부하고 가족 간의 애정이 없다. 그리고 자녀의 가출과 연락두절, 고부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양부담 등의 복합적인 가족문제를 겪고 있다. 그 결과 독거노인은 혼자서 살기 원하고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형 2는 ‘개인주의와 결속력 약화로 인한 해체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유형 2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유형 2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응답자의 개방형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21: 말도 마. 며느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제사 때도 명절 때도 안 봐. 아들만 왔다가 금방 가버리고. 가족들 간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자식이 전혀 힘이 안 돼. 자식한테 이런 저런 소리도 못하고 항상 외로워.

S22: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인정도 많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생활비며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이런 문제로 계속 얘기 안하다가 결국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나왔어. 명절이나 제사 때에 한 번 가면 얼른 가서 얼른 내려와 버려. 가족들 간에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어. 특히 며느리는 더 그래. 전화 한 번을 안 해.

S24: 자녀들이 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 주는 걸 힘들어 하고 나를 대하는 게 불편한 가봐. 명절이나 제사가 있음 그래도 이 때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때에도 전혀 말도 없고. 혼자 사는 게 눈치를 덜 봐서 편해 그리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거야.

(3) 유형 3의 특성: 가족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해체형

가족해체 요인에 대한 유형 3의 설명력은 9%로 P sample 중 4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3은 외국거주,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와의 성격차이, 자녀의 이혼으로 가족 내의 가

족해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족 간의 우애가 있고 연락도 하고 있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결속력이 높아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없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가족과 동거를 원하고 있다. 다만 가족 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모에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형 3의 경우 가족해체 요인은 ‘가족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해체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유형 3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유형 3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응답자의 개방형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유형 3의 진술문

구 분	Q statement	Z score
긍정	25. 가족은 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2.376
	5. 집안일을 가족과 함께 의논한다.	1.419
	4. 명절이나 제사가 있으면 가족모두가 참석한다.	1.416
부정	26. 부양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있다.	-1.030
	21. 가족간에 서로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1.244
	29. 나이들어서 혼자 사는 것은 당연하다.	-2.141
	28. 나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2.376

S5: 내가 어찌 사는지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전화도 안 해. 며느리가 아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거에 뭐라고 했나봐. 내가 며느리만 아니면 아들이랑 같이 살 텐데.

S8: 내가 딸만 2명이 있는데 큰 딸은 이혼해서 딸 하나 데리고 서울에서 사는데 생활이 좀 힘들어. 그래서 작은 딸이 내 방세를 주고 또 동사무소나 성당에서 도와줘서 그나마 생활하고 있어. 그런데 3-4년 전에 중풍이 와서 왼쪽 팔, 다리가 힘이 없어.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1주일 전에 퇴원했거든. 방세며 병원비며 딸들한테 아주 미안해 죽겠어. 같이 살려고 해도 딸들이 나한테 드는 돈에 얼마나 힘들겠어? 저들도 제대로 살기 힘든데. 딸들이 나를 귀찮게 생각하지는 않아. 저들도 제대로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아주 버거워해. 그래서 전화연락도 없고, 어찌 사는지 얘기도 안 해.

(4) 유형 4의 특성: 건강상태에 의한 자립해체형

[표 7] 유형 4의 진술문

구 분	Q statement	Z score
긍정	28. 나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1.901
	26. 부양문제로 가족간에 갈등이 있다.	1.241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1.237
	4. 명절이나 제사가 있으면 가족모두가 참석한다.	1.089
부정	3.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	-1.499
	13. 가족들에게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627
	20. 가족간에 싸움이 잦은 편이다.	-1.680
	27. 가족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불편해 한다.	-1.772
	25. 가족은 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에 부담스러워한다.	-1.901

가족해체 요인에 대한 유형 4의 설명력은 10%로 P sample 중 3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4는 가족결속력은 좋으나 건강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독거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건강문제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 두 가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살기 원하는 자립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 스스로가 건강하기 때문에 굳이 가족과 함께 동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를 원한다. 가족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부모와의 동거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가족해체를 가져오는 해체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나쁜 건강상태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와 가족해체로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형 4는 ‘건강상태에 의한 자립해체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유형 4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유형 4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응답자의 개방형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3: 우리 가족은 자주 모이기도 하고 나한테는 매월 생활비, 용돈을 주며 같이 살자고 해. 그런데 내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해서 이려고 살아. 나중에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애들이 얼마나 날 싫어하겠어.

S9: 한 번은 천식으로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더니 딸들이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짜증을 내면서 나더러 내려가라고 한 적이 있어. 이제 아파서 병원가려고 해도 눈치가 너무 보여 아파도 그냥 참고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가족해체요인을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유형화하고자 한다. 8차례의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29개의 진술문을 29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Q분류를 하게 하였다.

Q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 1은 정체성상실과 무력감으로 인한 자립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족구성원간의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미칠 영향과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문제로 인한 가족문제와 함께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도 수반하게 되는데 가족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무력감과 쇠퇴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존재감의 상실을 느끼게 된다. 결국 노화를 통한 심리적인 변화, 즉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짐만 되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무력감과 정체성의 상실로 가족해체라는 결과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유형 2는 개인주의와 결속력 약화로 인한 해체형으로 명명하였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상실되어 있고 부모인생과 자식인생을 별개로 보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무관심과 대화단절, 불편함이라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고, 부모 자식간의 정서적 유대, 즉, 가족결속력이 약화,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 3은 가족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해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은 자식들이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부양을 책임질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며느리와의 갈등, 자식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부모와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또한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정부지원제도와 외부기관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에 가족자원의 결핍이 가족해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4는 건강상태에 의한 자립해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4는 두 가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살기 원하는 자립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 스스로가 건강하기 때문에 굳이 가족과 함께 동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를 원한다. 가족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부모와의 동거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가족해체를 가져오는 해체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나쁜 건강상태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와 가족해체로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자립형과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의 부담에서 나타나는 해체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를 보면, 첫째, 혼자 살기를 원하는 자립형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접근과 개입으로 생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경로당과 지역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생활 자립을 위한 취사, 청소, 요리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지역거주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교육 및 자립심고취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로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여 밀착형 관계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노노부양에 의한 독거노인 친구맺기를 통하여 기존의 단순한 신체적 성격의 돌봄서비스와는 다른 관계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독거노인에게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친인척 혹은 친구와 함께 거주 또는 동거를 장려하는 주거공동체를 도입하고, 독거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젊은 층, 즉 대학생이나 주부들과 일촌맺기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정서적 가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독거노인복합공동체 개념도입과 이에 따른 독거노인 전용센터와 같은 전문적 보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단순한 주거중심의 공동체적 접근보다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합적인 공동체적 접근으로 건강관리, 일자리지원, 주거지원, 친구 사귀기를 통한 사회심리적 지원을 포괄하여

독거노인을 전문적으로 관리,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독거노인을 위한 소규모 형태의 복합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가족해체로 인한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과 사촌 맺기 운동과 같은 관계형성, 지역문화 활동조성 등 이웃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노년기 삶보다는 이웃과의 상호교류 및 친교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Q 진술문의 수집에 있어서 다소 한정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연구주제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를 테면, 일반인이나 공무원 등 각계각층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료수집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P 표본의 선정과정에서 대상자의 범위를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 대상자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대상자들로 한정하여 전체 노인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발전적인 후속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덧붙인다면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해체에 대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진술문의 내용을 구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참신하고 다양한 진술문들을 구성하여 가족해체 요인에 대한 유형을 밝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족해체의 측정 지표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 김두연 (2006). 빈곤과 핵가족해체: 빈곤층 조손가족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중 (2007).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가족상담방안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08). 노인의 부양의미기대, 부모역할만족 및 자녀결속력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4. 161-188.
- 김수현, 강현정, 김윤정 (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김순은 (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7(1). 5-25.
- _____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금정.
- 김승권 (2002). “가족해체의 발생원인 및 규모추정과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68.
- 김승권, 송수진, 김유경, 이태진 (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옥 (2001). 실직가정의 가정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3-16.
- 김현수, 원유미 (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규 (2008). Q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성 (2011). 빈곤의 대물림에 관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인식연구: Q방법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8(2).
- 노혜련 (2000). 실직자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 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 도미향, 윤지영, 이명숙 (201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한국가족복지학 15(1).
- 문수경, 정재은, 손의성 (2008). 중풍장애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사회참여와 가족지지 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24. 223-248.
- 박성원 (2005). 실업이 가족해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영준, 송인옥 (2008). 노인 부양가족의 가족갈등, 부양부담 및 사회적 지지간의 인과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53-78.
- 박재규, 이정림 (2010).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보건사회연구 30(1). 142-169.
- 변화순, 원영애, 김성경, 김영란, 김민정 (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부승희 (2005). 자본주의 발전과 가부장제적 가족의 해체: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연희 (2011). 동거여부와 가족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원식, 정연주 (2010).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인식. 사회과학연구 17(3).
- 안병철 (2000). 경제적 고통과 가족 갈등. 사회와 문화 11, 165-183.
- 양해경 (1998). 경제위기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 오선영 (2008).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노인의 가족기능과 외로움. 노인복지연구 42, 267-290.
- 오재은 (2006). 가정해체의 원인 및 실태파악과 가족정책 개선방안. 진리논단 13.
- 윤홍식 (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 _____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 5-27.
- 장수미 (2008). 가족유형과 가족지지가 노인 당뇨병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2, 35-66.
- 장희선, 김윤정 (2008). 도서지역 여성독거노인의 신체적 건강,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7(2), 233-259.
- 정동하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조부모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 정순돌, 유정예 (2009). 노인부양가족의 가족신념체계와 부양부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5, 67-88.
- 조광영 (2003).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 (1999a). 실직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3.
- _____ (1999b).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 상황과 복지 5.
- _____ (1999c). 실직자 가족의 해체 가능성에 관한 연구—실직자 가정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균 (1994). 복지국가, 고용안정 그리고 가족. 가족학논집 6, 267-285.
- 최일섭, 조성희 (2000). 실업과 가족해체: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접근. 집문당.
- 최재석 (1998).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황청일, 조광영 (2005). 빈곤과 가족해체와의 관련성 모색.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6(3).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3rd ed.)*. NY: CBS College Publishing.
- Larso, Jeffrey H. (1984). The effect of husband's unemployment on marital and family relations in bule-collar families. *Family Relation* 33. 503-511.
- McKeown, B. and Thomas, D. (1988). *Q methodology*. Newbury Park: Sage Pub.

A Study On Family Disorganization Type Of Elderly People Live Alone

Shin, GeunHwa*

This study classified the factors of family disorganization of elderly people live alone in diverse aspects except the economic aspect. 29 statements selected through 8 times of recategorization process were distributed to 29 elderly people live alone and Q-sort was performed.

Four types were deducted through the analysis by Q methodologies. Type 1 is independent type which is resulting from loss of identity and sense of helplessness. Type 2 is disorganization type because of weakening of individualism and social cohesion. Type 3 is disorganization type because of lack of family resources. Type 4 is called as independent disorganization type according to the health condi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shows, First,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ervices for independent elderly people live alone who want to live alone is required. Second, existing old people care services should be much more intensified and intensive related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hir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elderly people live alone multiple communities and consequent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protection institution like elderly people live alone exclusive center are required. Fourth, for elderly people live alone who suffer from family dis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solutions through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because they have problems of psychosocial problems that they are isolated from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geun-hwa@hanmail.net)

their families.

Key Words: Family Disorganization, Elderly People Live Alone, Type, Q methodology

◆ 2012.10.01. 접수 / 2012.11.09. 1차 수정 / 2012.11.30. 게재 확정